

2026
완성

2026 완성 국어 문학 유형 연습 1 | 가는 길, 우리가 물이 되어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가)

≤ [그립다 (화자의 심정을 단적으로 표현함.)

말을 할까

하니 (행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행간 걸침으로 망설임의 감정을 표현함. ‘말을 할까 하니 / 그리워’라고 했을 때보다 시간적 거리감을 주어 화자의 망설임을 잘 드러냄. 3음보의 민요적 율격으로, 한 행에 1음보를 배열함.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워] ([]: 그립다는 말을 할까 생각하니 그리움이 더욱 사무친다는 심정을 고백하고 있음.)

▶ 1연: 이별의 안타까움

그냥 같까 (화자의 내적 갈등. 망설이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말줄임표를 통해 미련과 여운이 드러남. **말줄임표의 효과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 >: 내면 심리. 한 행에 각각 1음보를 배열하여 낭독의 속도를 늦추고 (시의 호흡을 느리게 하여),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망설이는 화자의 내면적 갈등이 잘 드러나게 함. **시의 호흡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2연: 망설임과 갈등의 심화

≤ [저 산에도 까마귀 (어둡고 슬픈 이미지로 이별의 분위기 조성.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으로 이별의 안타까움을 심화함.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객관적 상관물), 들에 까마귀,] ([]: 유사한 구조 반복)

서산에는 해 진다고 (시간적 배경. 이별이 다가옴.)

지저귀니다. (청각적 이미지.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림.)

▶ 3연: 떠나기를 재촉하는 까마귀

[앞 강물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소재. 이별의 이미지를 지니는 소재.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으로 이별의 안타까움을 심화함.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객관적 상관물. **시에 나오는 객관적 상관물과 관련하여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뒷 강물,

흐르는 물 (끝없이 흐르는 시간 및 이별의 이미지로 인간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의미함.)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유사한 구조 반복. 이별을 재촉하여 이별의 아픔을 심화함.)

흘러도 연달아 흐립디다려. (‘흐립디다려’의 준말. 평복 방언)] ([]: 전반적으로 유음과 비음을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거두고 있고, 특히 4연에서 많이 사용됨.) ≥ (< >: 외적 상황. 후경. 한 행에 1~3음보를 배열하여 낭독의 속도를 높이고 (시의 호흡을 빠르게 하여), 떠나기를 재촉하여 이별의 정한을 심화하는 외면적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였음. 1, 2연과 3, 4연이 대조를 이루어 이별의 아쉬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냄.)

▶ 4연: 따라오라고 재촉하는 강물

- 「가는 길」

(나)

우리가 물(생명력, 포용력 등을 가진 존재. (가)의 '강물'과 연계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이 되어 만난다면(가정법의 형식으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함.)

가문 어느 집(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집들. 메마르고 비정한 현대 사회의 모습)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넉넉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함께 해 줄 수 있는 존재)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음성 상징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 1연: 물이 되어 만나기를 소망함.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삶을 성찰하는 시간)엔

저 혼자 깊어지는(성찰을 통해 보다 성숙해지는 상황)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척박한 메마른 현실)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영탄법.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아직 처녀(순수성, 원시성을 상징)인
부끄러운 바다(이상향)에 닿는다면.

▶ 2연: 생명력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기를 소망함.

그러나(시상의 전환.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죽음, 소멸, 파괴의 이미지)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숯이 된 뼈(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진 후 남은 새로운 생명력 ② 부정적인 현실을 정화하기 위해 자신을 불태운 희생적 존재)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① 불에 의해 소멸해 가는 것들 ② 부정적 현실을 정화하기 위해 현재 자신을 불태우고 있는 희생적 존재)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 3연: 불이 되어 만나야 하는 현재의 상황

만 리(萬里)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조화와 합일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여

저 불 지난 뒤(부정적인 것들이 다 타 버린 후)에

흐르는 물(조화로운 합일, 충만한 생명력)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음성 상징어)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이상향.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로 오라.

▶ 4연: 불이 지난 뒤에 물로 만나고 싶은 소망
- 「우리가 물이 되어」

(가)

핵심 정리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전통적, 민요적, 애상적, 서정적
- 주제: 임과의 이별
- 운율: 내재율(3음보, 7·5조의 민요적 율격)
- 특징
- 선정후경(先情後景)의 구조를 취함.



2026
완성

2026 완성 국어 문학 유형 1 | 가는 길, 우리가 물이 되어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山)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西山)에는 해진다고 지저귀니다.

앞 강(江)물, 뒤 강(江)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 「가는 길」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쏙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울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우리가 물이 되어」

1. (가)의 ‘강물’과 (나)의 ‘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강물’과 (나)의 ‘물’은 모두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적 세계를 상징한다.
- ② (가)의 ‘강물’은 이별을 재촉하는 소재이고, (나)의 ‘물’은 생명력의 회복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 ③ (가)의 ‘강물’은 자연의 광대함을, (나)의 ‘물’은 소멸하는 자연의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 ④ (가)의 ‘강물’은 화자의 슬픔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고, (나)의 ‘물’은 화자의 고통을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 ⑤ (가)의 ‘강물’은 정적인 이미지를, (나)의 ‘물’은 동적인 이미지를 통해 시적 의미를 형성한다.

2.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시행의 길이를 조절하여 화자의 심리와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대립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가정의 방식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3. (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정후경(先情後境)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 ② 민요적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울림소리를 이용해 음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④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행간 걸침으로 시적 화자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4. (가)에서 시행 배열이 주제 전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 그림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 ㉡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 ① ㉠은 3음보이며, ㉡은 4음보이다.
- ② ㉠은 내면 심리를 보이며, ㉡은 외적 상황을 보인다.
- ③ ㉠에서 이별을 재촉하고 있으며, ㉡에서는 망설임이 보인다.
- ④ ㉠은 빠른 호흡으로 읽으며, ㉡은 느린 호흡으로 읽으면 좋다.
- ⑤ ㉠은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 ㉡은 의도적인 엇박을 통해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5. (나)를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물'에서 '바다'로의 공간 확장을 통해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 ②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과 '만 리 밖'이 지닌 의미가 연결되어 삶의 유한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③ '만난다면', '흐른다면' 등의 가정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과거에 대한 후회를 강조하고 있다.
- ④ '키 큰 나무', '죽은 나무뿌리', '숯이 된 뼈'는 모두 메마른 현대 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 '우르르 우르르', '푸시시 푸시시'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생동감을 자아낸다.

6. (나)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현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순수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열정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③ 자신의 상황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④ 사랑하는 대상과 인연을 맺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완전한 합일과 생명력이 충만한 세계를 소망하고 있다.

【7~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림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같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山)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西山)에는 해진다고 ㉣지저귀니다.

앞 강(江)물, 뒤 강(江)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 「가는 길」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솟아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우리가 물이 되어」

7. (가)와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나)의 화자와 달리 이별의 상황을 담담하게 수용하고 있다.
- ② (나)의 화자는 (가)의 화자와 달리 대상과의 만남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③ (가)의 화자는 과거를, (나)의 화자는 미래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현실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⑤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8.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학 작품 속 화자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서나 태도를 드러낸다. 때로는 외부 세계가 화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가면서 화자의 안타까움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화자가 외부 세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자신의 소망을 투영하기도 한다.

- ① (가)에서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가 ‘지저귀’는 것은, 화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는 외부 세계를 보여주어 안타까움을 심화하는군.
- ② (가)에서 ‘흐르는 물’이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앞에서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정한을 깊게 만드는군.
- ③ (나)에서 ‘가문 어느 집’에 ‘물’이 되어 흘러간다고 상상하는 것은, 화자가 외부 세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소망을 투영한 것이군.
- ④ (나)에서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 외부 세계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치유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는군.
- ⑤ (가)의 화자는 ‘강물’의 흐름에 순응하며 이별을 받아들이고, (나)의 화자는 ‘불’의 이미지에 저항하며 만남을 추구하는군.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가)의 ‘강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가며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고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게 하여 슬픔을 심화하는 소재이다. (나)의 ‘물’은 ‘가문 어느 집’,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는 생명력의 원천이자, 모든 것이 정화된 후 도달할 조화와 합일의 상태를 의미한다.

① (가)의 ‘강물’은 이별을 재촉하는 부정적 기능을 하므로 이상적 세계가 아니다.

③ (가)의 ‘강물’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소재로 이별을 재촉하는 시어이며, 자연의 광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나)의 ‘물’은 생명력, 포용력 등을 가진 존재로 소멸하는 자연의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④ (가)의 ‘강물’은 위로가 아닌 재촉의 역할을 한다. (나)의 ‘물’은 화자가 소망하는 긍정적 대상이다.

⑤ (가)의 ‘강물’과 (나)의 ‘물’은 모두 ‘흐르는’ 속성을 지닌 동적인 이미지이다.

2. 정답 ④

(나)는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과 같이 가정의 방식을 통해 소망을 표현하지만, (가)는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토로하거나 외부 풍경을 묘사할 뿐, 가정의 방식을 사용하여 소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① (가)는 1, 2연의 짧은 시행과 3, 4연의 상대적으로 긴 시행을 대비하여 화자의 내면적 갈등(망설임)과 외면(재촉)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나)는 ‘물’(생명, 조화)과 ‘불’(소멸, 정화)이라는 대립적 시어를 중심에 두고 시상을 전개하며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③ (가)는 ‘지저귀니다’에서, (나)는 ‘우르르 우르르’, ‘푸시시 푸시시’ 등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한다.

⑤ (가)는 ‘그립다’, ‘까마귀’, ‘강물’ 등의 시어를, (나)는 ‘물’, ‘흐르다면’, ‘불’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한다.

3. 정답 ④

위 시에서 공감각적 이미지는 찾을 수 없다.

① 1~2연에서 이별의 내면적 상황을, 3~4연에서 이별의 외면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선정후경(先情後境)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3음보, 7·5조의 민요적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③ 유음 ‘ㄹ’과 비음 ‘ㄴ, ㅇ, ㄹ’과 같은 울림소리를 이용해 음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⑤ ‘그립다 / 말을 할까 / 하니 그리워’에서 행간 걸침을 사용하여 화자의 망설임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4. 정답 ②

㉠은 화자의 망설임과 같은 내면 심리가 드러나며, ㉡은 이별을 재촉하는 외적 상황이 나타난다.

① ㉠과 ㉡ 모두 3음보이다.

③ ㉠에서 이별에 대한 망설임이 나타나며, ㉡에서 이별을 재촉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④ ㉠이 느린 호흡, ㉡이 빠른 호흡으로 읽으면 좋다.

⑤ ㉠과 ㉡ 모두 3음보의 안정된 운율을 나타낸다.

5. 정답 ⑤

‘우르르 우르르’, ‘푸시시 푸시시’ 등의 의성어는 청각적 표현으로 생동감을 주며 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인식하도록 해주므로 적절하다.

① ‘바다’는 화자가 원하는 이상향이므로, ‘강물’에서 ‘바다’로의 공간 확장을 통해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은 성찰을 통해 보다 성숙해지는 상황을 말하며 ‘만 리 밖’은 조화와 합일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이 시에서 화자는 가정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④ ‘키 큰 나무’는 넉넉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함께 해 줄 수 있는 존재이며, ‘죽은 나무뿌리’는 척박한 메마른 현실을 의미한다. ‘숯이 된 뼈’는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진 후 남은 새로운 생명력과 부정적인 현실을 정화하기 위해 자

신을 불태운 희생적 존재이다.

6. [정답] ⑤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넓고 깨끗한 하늘'이라는 이상적 공간을 소망하고 있다. 화자는 이 공간에서 완전한 합일과 생명력이 넘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① 이 시에서 역설법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② 이 시에서 순수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열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상황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 적극적, 능동적 자세로 만나고 싶은 열망과 만남에 대한 기대를 노래하고 있다.
- ④ 이 시에서 화자는 이별의 고통, 슬픔, 한스러움이 아닌 만나고 싶은 열망, 만남에 대한 기대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노래하고 있다.

7. [정답] ④

(가)의 화자는 '그립다 / 말을 할까 / 하니 그리워', '그냥 같까 / 그래도 / 다시 더 한 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별을 앞에 두고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나)의 화자는 '지금 우리는 / 불로 만나려 한다', '저 불 지난 뒤에 / 흐르는 물로 만나자' 등에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에 진정한 만남을 이루려는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① (가)의 화자는 망설임과 미련을 보이며 이별의 상황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 ② (나)의 화자는 '흐르는 물로 만나자'고 말하며 만남에 대한 강한 희망과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회의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 ③ (가)의 화자는 이별의 슬픔이 지배하는 현재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의 화자는 현재('불')와 미래('물')를 대비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⑤ (가)의 '까마귀', '강물'은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나)에서는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8. [정답] ⑤

(가)의 화자는 흘러가는 '강물'을 보며 이별을 재촉당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을 뿐, 그 흐름에 순응

하여 이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다시 더 한 번……'이라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불'의 이미지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정화를 위해 '불'이 되는 과정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①, ② <보기>의 설명처럼 (가)의 '까마귀'와 '강물'은 화자의 슬픈 심정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외부 세계를 상징하며, 이를 통해 화자의 안타까움이 심화된다.
- ③, ④ <보기>의 설명처럼 (나)의 화자는 '물'이 되어 '가문 어느 집'과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는 상상을 통해, 외부 세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생명력을 회복시키려는 소망과 의지를 보여준다.

9. [정답] ⑤

1, 2연은 한 행이 1음보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별을 망설이는 화자의 심정을 담아 느리게 읽고, 3, 4연은 한 행이 3음보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별을 재촉하는 외적 상황을 담아 빠르게 읽으면서 화자의 심리를 느낄 수 있다.

- ① 화자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지만, 대칭 구조로 표현된 것은 아니다.
- ② '까마귀'는 화자의 이별을 재촉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바라는 상황을 암시하지 않는다.
- ③ (가)는 화자의 경험을 서사적으로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④ 시의 처음과 끝을 유사한 통사 구조로 반복한 수미상관 구조가 드러나지 않는다.

10. [정답] ③

㉞은 화자에게 공감하며 화자를 위로하는 존재가 아니라 화자의 이별을 재촉하는 존재이다.

- ① ㉟은 화자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시어이다.
- ② ㉠은 말줄임표를 통해 이별에 대한 화자의 망설임과 미련의 감정이 드러난다.
- ④ ㉡은 까마귀의 울음으로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며 이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고 이별을 재촉하고 있다.
- ⑤ ㉢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며 인간의 의지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